

“우리는 승리한다. 우리는 포스코 노동자다”

광주전남·포항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4차 정규직 전환 집단소송·포스코, 고법 패소에도 정규직 전환 거부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4차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시작했다.

노조 포항지부와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이 10월 20일 경북 포항 포스코 앞에서 ‘포스코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요구 4차 집단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원청 포스코에 즉각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이번 소송에 포항과 광양 포스코 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 324명이 참여한다. 두 지회는 기존에 소송을 벌이던 광양제철소의 사내하청노동자에 더해 포항제철소 사내하청노동자가 함께 참여한 집단소송이라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에 참여한 두 지회는 승소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포스코의 제철소 생산공정은 원료부터 제품 출하까지 연속공정 흐름이라서 도급이 불가능하다. 두 지회는 2015년 현대자동차의 대법원 판례, 2016년 8월 17일 포스코사내하청지회 관련 광주고등법원 판결, 최근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불법파견 소송 결과 등을 종합하면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포스코



의 정규직임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광주고등법원은 2016년 8월 17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 16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를 포스코의 정규직 노동자로 간주하는 판결을 했다. 금속노조는 판결에 따라 원청 포스코에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포스코는 대법원에 상고한 채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포스코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대거 금속노조 가입하고 정규직 전환 요구 집단소송 참여하자 이를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2006년 포스코에서 분사한 광양과 포항의 이지포텍, 포렌, 포웰, 포센, 프롬스 등 소속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금속노조 가입과 정규직 전환 소송 참여를 결정하고 포스코사

내하청지회에 금속노조 가입 원서를 내자, 대다수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제외한 이들 분사업체 노동자들에게만 임금을 차등 적용하겠다고 하면서 노조 가입과 소송 참여를 방해했다.

노조와 포항지부,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기자회견에서 “포스코는 불

필요한 법 다툼을 중단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포스코의 불법파견, 임금 차별 등으로 1만 8천 여 명에 이르는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지 포스코는 생각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2015년 6월 현재 포스코의 사내유보금은 47조 원이 넘는다.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충분하다”라며 “금속노조의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을 위한 특별단체교섭 요구에 응하라”라고 촉구했다.

노조 포항지부와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포스코가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특별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포스코는 금속노조의 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 시즌 2 시작했다”

20일지회, 한라그룹 본사 앞 결의대회... “만도헬라에 속아 지회 나간 동료들 돌아오라”



“이제 시즌 2 시작입니다. 시즌 1 보다 사람은 줄었지만, 더 단단하게 뭉쳤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금속노조 인천지부 만도헬라 비정규직지회(지회장 직무대행 김동용, 아래 지회)는 최근 조합원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조합원들의 얼굴에서 지친 기색을 찾을 수 없었다.

지회는 10월 20일 한라그룹 본사가 있는 서울 송파구 시그마타워 앞에서 ‘정몽원 회장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라는 이름으로 ‘만도헬라 노조파괴 규탄, 정규직 전환 노동부 시정명령 이행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회 조합원들은 “금속노조 깃발을 사수하고, 정규직 전환을 반드시 쟁취하겠다”라는 결의를 다졌다.

이상민 수석부지회장 직무대행은 “우리는 지회 설립 전에 관리자들이 현장에서 욕을 하고, 강제로 특근, 잔업을 시켜도 아무 이야기도 못 했다. 지회 설립으로 우리는 이미 많

은 것을 이뤘다”라며 “지금 마음을 잊지 말고, 승리의 날까지 투쟁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동 금속노조 인천지부장은 “만도헬라가 노동자를 정말 잘 대우할 생각이었다면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것이다. 지금 만도헬라가 정규직화를 이야기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노동자를 억압할 것”이라며 “지회를 나간 노동자들이 지회로 돌아오도록 문을 열어 놓자”라고 독려했다.

이승열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만도헬라는 2012년 내부 문건에서 현장 생산직 도급활용이 불법과견 소지가 크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라며 “한라그룹은 지금 당장 조합원들을 정규직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보다 10배, 20배 더 많은 금속노동자가 이 자리에 모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태민 전 지회장 등은 추석 연휴 다음날인 10월 11일 “10월 말 전에 지회장인 내가 책임지고 정규직 전

환을 약속받겠다”, “금속노조 탈퇴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다”라며 지회 조합원들에게 금속노조 탈퇴서를 돌렸다. 이 과정에서 300여 명이던 지회 조합원이 대거 줄었다가 10월 20일 현재 80여 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지회는 만도헬라가 지회 탈퇴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만도헬라는 지회 설립 다음 날인 지난 2월 13일 지회 간부의 ‘성향분석’ 자료를 만도 노사협력팀에 보내고, 지회가 집회에서 외친 구호, 팻말, 현수막 내용 등을 모두 파악해 일지를 작성하는 등 지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왔다.

지회는 한라그룹 본사, 국회, 인천 지방검찰청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벌이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회는 다음 주 국정감사가 열리는 국회, 만도헬라의 불법과견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수사 중인 인천지방검찰청을 압박하는 투쟁을 벌인다.